

정보 연쇄 효과와 집단적 인식의 형성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전파 과정에서 개별 행위자의 선택이 다른 행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집단적 합의를 형성하는 현상은 정보 연쇄 효과(information cascade)로 설명된다. 정보 연쇄 효과란 선행 행위자의 선택이 후행 행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누적되어 특정 인식이 집단적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인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비합리적 집단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한 대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 간 서열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 사례는 정보 연쇄 효과가 어떻게 집단적 인식을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대상이 된다. 당시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각자 소속 대학의 입학 성적, 재단의 지원 규모, 학과별 전통 등을 근거로 경쟁 대학과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열의 구성은 단순한 성적 비교를 넘어 참여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당시의 경쟁 구도를 분석해 보면, 성균관대는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서강대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학과를 활용하여 성균관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외대와 중앙대를 하위로 배치하려 하였다. 한국외대는 어문 계열의 강세를 무기로 한양대를 압박하였으나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수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중앙대는 입학 성적이 부진하여 언어·수리·외국어 영역만 반영하는 특수 전형제를 도입하였으나 서열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경희대는 특정 기업의 채용 기준표가 유출되면서 동국대·홍익대·건국대 등과 묶인 기존 비교군 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희대 소속의 한 참여자가 기존의 서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서열을 제안하였다. 그가 제시한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서열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를 상위 그룹으로, 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를 하위 그룹으로 묶는 체계였다. 이 서열은 객관적 근거나 체계적인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점차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 서열이 수용된 핵심적인 이유는 각 대학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열의 구성원 각각은 자신의 기존 위치보다 ㉡유리한 배치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각 행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위 그룹인 '서성한'의 경우, 성균관대는 보다 상위로 인식되는 서강대와의 연계 효과를 얻었고, 한양대는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외대와 중앙대를 하위로 배치하는 이득을 확보하였다. 하위 그룹인 '중경외시'의 경우, 중앙대는 상위 그룹과의 연결로 인해 서열 논쟁에서의 불리한 위치를 벗

어날 수 있었으며, 경희대는 기존 비교군에서 이탈하여 상위 그룹과 인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시립대는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었으나, 한국외대는 ㉢기존의 우위를 상실하고 하위로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객관적 기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외대를 제외한 모든 관련 대학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서열을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서열을 반복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그 서열이 객관적 사실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집단적 인식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사례는 정보 생태계에서 ㉤초기 조건과 전략적 행위가 결합될 때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단일 행위자의 제안이 각 대학의 이해관계와 정렬되면서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 구조는 한 번 안정화된 후 외부에서의 도전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현상에서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즉 초기에 형성된 인식이 후속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보 연쇄 효과는 선행 행위자의 선택이 후행 행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연쇄적으로 누적되어 특정 인식이 집단적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② 경희대 소속 참여자가 제안한 새로운 서열은 체계적인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각 대학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점차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 ③ 한양대는 새로운 서열의 수용으로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외대와 중앙대를 하위로 배치하는 이득을 확보하였고, 성균관대는 서강대와의 연계 효과를 얻었다.
- ④ 한국외대는 어문 계열의 강세를 무기로 한양대를 압박하였고, 새로운 서열이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다수 행위자의 지지를 받아 기존의 우위를 유지하였다.
- ⑤ 새로운 서열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에는 외부에서의 도전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초기에 형성된 인식이 후속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로 의존성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객관적 근거나 체계적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각 대학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점차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서열 체계이다.
- ② ㉡은 새로운 서열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기존 위치보다 향상된 배치를 획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모든 행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은 한국외대가 어문 계열의 강세를 무기로 한양대를 압박하던 기존 우위가 새로운 서열의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결과를 가리킨다.
- ④ ㉣은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객관적 기준만으로 서열이 정착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 ⑤ ㉣은 경로 의존성이 형성된 이후 외부 도전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단일 행위자의 제안과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정렬됨으로써 방지되는 조건을 가리킨다.

3. 밑줄 친 ㉠이 성립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새로운 서열이 객관적 근거의 보완을 통해 점진적 설득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 ① 밑줄 친 ㉠이 성립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새로운 서열이 객관적 근거의 보완을 통해 점진적 설득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 ② 밑줄 친 ㉡은 서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효용 증대를 가져왔으나, ㉢으로 표상되는 행위자의 존재는 정보 연쇄 효과의 안정적 정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③ 밑줄 친 ㉣이 수용된 과정은 합리적 개인의 효용 극대화 선택이 집단적으로 수렴될 때, 그 결과가 객관적 타당성과 무관하게도 안정적 질서로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④ 밑줄 친 ㉤에서 언급된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는, 초기 조건이 전략적 행위와 무관하게 형성되더라도 경로 의존성에 의해 후속 판단의 기준으로 고착됨을 의미한다.
- ⑤ 한국외대가 새로운 서열을 끝내 거부했음에도 서열이 정착한 것은, 정보 연쇄 효과가 다수 행위자의 표명을 통해 소수의 이의 제기를 무력화하는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밑줄 친 ㉠~㉣ 중, 해당 밑줄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것이 지문에서 수행하는 논증적 역할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희대 참여자가 제안한 새로운 서열에서 각 구성원이 획득한 향상된 위치를 가리키며, 이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전략적 이해관계의 정렬이 서열 수용의 동기였음을 보여 주는 핵심적 논거로 기능한다.
- ② ㉡은 한국외대가 어문 계열의 강세를 무기로 한양대를 압박하던 기존의 전략적 우위를 가리키며, 이는 정보 연쇄 효과가 특정 행위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반례적 사례로 기능한다.
- ③ ㉢은 새로운 서열이 체계적인 논증이나 입학 성적 등의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전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 ④ ㉣은 경희대 참여자의 단일한 제안이 각 대학의 이해관계와 정렬되는 초기 상황을 가리키며, 이는 경로 의존성에 의해 형성된 인식이 외부 도전에 저항하는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기능한다.
- ⑤ ㉤은 한국외대를 제외한 모든 관련 대학이 새로운 서열을 수용하면서 얻게 된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가리키며, 이는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서열을 반복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정보 연쇄 효과가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경험적 증거로 기능한다.

정보 연쇄 효과와 집단적 인식의 형성

지문 분석

정보 연쇄 효과와 집단적 인식의 형성: 대학 서열 사례를 중심으로

■ 개요

이 지문은 정보 연쇄 효과의 개념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대학 서열 논쟁 사례를 통해 객관적 근거보다 사회적 합의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집단적 인식을 재구성하고 고착시키는지 분석합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경로 의존성이 발생하여 새로운 질서가 외부의 도전에도 강건하게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 문단별 분석

1문단 [이론적 배경 및 핵심 개념 제시]

정보 연쇄 효과의 개념과 그것이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2문단 [분석 대상 사례의 제시 및 배경 설명]

2000년대 초반 대학 서열 논쟁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소개하고, 서열이 단순 성적 비교를 넘어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밝힘.

3문단 [사례의 구체적 상황 및 행위자 간 역학 관계 분석]

서열 논쟁 당시 각 대학(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의 경쟁 구도와 전략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4문단 [사례의 핵심 전환점 및 수용 원인 분석]

경희대 소속 참여자가 제안한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새로운 서열이 객관적 근거 없이도 각 대학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수용되었음을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함.

5문단 [새로운 서열의 결과 및 행위자별 효용 분석]

새로운 서열에서 각 대학이 얻은 구체적 이득을 상위 그룹(서성한)과 하위 그룹(중경외시)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한국외대만 기존 우위를 상실하였음을 밝힘.

6문단 [사례에 대한 정보 연쇄 효과 이론의 적용 및 의의 도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함에도 한국외대를 제외한 다수의 행위자가 서열을 반복 표명하면서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하였음을 분석함.

7문단 [사례의 확장적 해석 및 경로 의존성 개념 도출]

초기 조건과 전략적 행위가 결합되어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경로 의존성을 발생시켜 외부 도전에도 저항하는 강건한 질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함.

■ 핵심 개념

- 정보 연쇄 효과(information cascade)
선행 행위자의 선택이 후행 행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누적되어 특정 인식이 집단적으로 고착되는 과정
- 게임 이론
각 행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
-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초기에 형성된 인식이나 선택이 후속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변화에 저항하며 기존의 구조나 질서가 유지되는 현상

■ 논리적 흐름

이론(정보 연쇄 효과) 제시 → 사례(대학 서열 논쟁) 개요 → 사례의 구체적 경쟁 구도 분석 → 새로운 서열의 등장과 수용 원인(전략적 이해관계) 분석 →

행위자별 결과 분석 → 이론적 적용(정보 연쇄 효과 발생) → 확장적 해석(경로 의존성과 질서의 강건성)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특정 사회 현상을 이론적 렌즈를 통해 분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는 전형적인 인문·사회 과학 지문의 구조입니다.

■ 문제 해설

1. 정답 ④

▶ 핵심 지문에 명시된 행위자별 결과, 특히 한국외대의 결과(기존 우위 상실 및 하위 강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4번 선택지는 한국외대가 새로운 서열 수용 과정에서 기존의 우위를 유지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지문에서는 한국외대가 기존의 우위를 상실하고 하위로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지문 제1문단의 정보 연쇄 효과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 ② × 지문 제4문단의 내용으로, 새로운 서열이 체계적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 지문 제5문단의 내용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새로운 서열에서 얻은 이득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 ④ ○ 지문 제3문단에서 한국외대가 어문 계열 강제로 한양대를 압박한 것은 맞으나, 제5문단에서 한국외대는 '기존의 우위를 상실하고 하위로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 우위를 유지했다는 선택지의 내용과 모순된다.
- ⑤ × 지문 제7문단의 내용으로, 새로운 서열의 강건성과 경로 의존성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2. 정답 ①

▶ 핵심 각 밑줄 친 부분이 지문에서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이나 상황을 문맥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다. 1번 선택지는 ㉠에 대한 설명으로, 지문에서 '객관적 근거나 체계적인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점차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고 한 부분과 '각 대학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였기 때문'이라는 수용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선택지 분석]

- ① ○ ㉠ '서성한 중경외시'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이 서열이 '객관적 근거나 체계적인 논증 없이 제시되었으나' 영향력을 확보했으며, 그 이유가 '각 대학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 ② × ㉡ '유리한 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지문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기존의 우위를 상실'하고 하위로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모든 구성원'이 향상된 배치를 획득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 ③ × ㉢ '기존의 우위를 상실'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한국외대가 상실한 것은 '어문 계열의 강세를 무기로 한양대를 압박하던 우위'가 아니라, 새로운 서열에서 하위 그룹으로 강등되면서 겪게 된 '서열 논쟁에서의 기존 우위'이다. 한국외대는 한양대를 압박하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으며,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수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④ × ㉔ '객관적 기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은 객관적 기준이 없었음에도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여 서열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라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반대이다.
- ⑤ × ㉔ '초기 조건과 전략적 행위가 결합될 때'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경로 의존성'은 '초기에 형성된 인식이 후속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현상'이며, 형성된 구조가 '외부에서의 도전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부 도전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방지되는 조건'이라는 설명은 지문 내용과 모순된다.

3. 정답 ③

▶ 핵심 정보 연쇄 효과의 원리(합리적 개인의 효용 극대화 선택이 모여 객관적 근거 없이도 안정적인 집단적 질서를 형성함)를 사례에 정확히 대입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선택지는 '각 대학의 이해관계(효용 극대화 선택)'라는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으로 수렴된 결과가, '객관적 기준의 부재(객관적 타당성과 무관하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질서로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정보 연쇄 효과의 핵심 원리(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비합리적 집단 결과를 초래,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추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지문은 ㉔ '객관적 기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정착했다고 명시하므로, '객관적 근거의 보완'을 통해 설득력을 획득했다는 선지는 지문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 ② × 지문에 따르면 ㉔ '유리한 배치'를 획득한 구성원은 '한국외대를 제외한 모든 관련 대학'입니다. 즉 모두에게 효용이 증대된 것이 아니며, 한국외대의 ㉔ '기존의 우위를 상실'이 정보 연쇄 효과의 정착을 지연시켰다는 내용 역시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 ③ ○ 지문의 '각 행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으로 수렴되어 '객관적 기준의 부재(객관적 타당성과 무관하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안정적 질서로 정착)'되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종합한 추론입니다.
- ④ × 지문은 ㉔ '초기 조건과 전략적 행위가 결합될 때' 새로운 질서가 출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초기 조건이 전략적 행위와 '무관하게' 형성되었다는 선지는 지문의 핵심 논리를 부정하는 오답입니다.
- ⑤ × 지문에는 한국외대가 새로운 서열을 '끝내 거부했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외대를 제외한 다수의 행위자들이 서열을 수용하거나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정보 연쇄 효과가 발생하여 소수의 이의 제기가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끝내 거부했다'는 사실 확인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4. 정답 ③

▶ 핵심 밑줄 친 대상이 지칭하는 바를 문맥상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글쓴이의 주장(논지)을 전개하는 데 어떤 역할(전제, 논거, 결과 등)을 수행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 문항은 밑줄 친 ㉔~㉔이 지문에서 가리키는 대상과 그것이 수행하는 논증적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정답은 3번으로, ㉔은 새로운 서열이 객관적 기준 없이 제시되었음을 가리킨다. 지문의 핵심 주장은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며, ㉔의 '객관적 기준의 부재'는 이 주장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상황 설정)으로 기능한다. 3번 선택지는 이를 '주장을 전제하기보다는 의심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서술하여, 글쓴이의 논리적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보기에서는 지문의 전개 방식과 다르게 서술된 선택지를 고르라고 요구했기에, 논증적 역할을 잘못 짚은 3번이 정답이다.

[선택지 분석]

- ① × ㉔이 경희대 참여자가 제안한 서열에서 각 구성원이 기존보다 획득한 '유리한 배치'를 가리키며, 이것이 전략적 이해관계의 정렬이라는 핵심 논거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적절한 연결이다.
- ② × ㉔이 한국외대가 기존에 가졌던 우위를 상실한 상황을 가리키며, 이것이 정보 연쇄 효과가 특정 행위자에게 선택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적절한 연결이다.
- ③ ○ ㉔은 객관적 기준이 없었음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정착했다'고 서술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객관적 근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의 전제(또는 상황적 배경)로 삼는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이를 '주장을 의심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서술하여, 글쓴이의 논증적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다.
- ④ × ㉔이 경희대 참여자의 제안과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초기 상황을 가리키며, 이것이 경로 의존성에 의한 인식 형성 및 외부 도전 저항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또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적절한 연결이다.
- ⑤ × ㉔이 한국외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새로운 서열을 수용하며 얻게 된 유리한 배치를 가리키며, 이것이 정보 연쇄 효과가 촉발될 수 있었던 경험적 증거(동기)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적절한 연결이다.

■ 학습 팁

1. 밑줄 친 대상의 지시 대상을 파악할 때는 앞뒤 문맥을 꼼꼼히 읽고, 대명사나 명사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대상의 '논증적 역할'을 묻는 문제에서는, 해당 대상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인지, 아니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나 조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선택지가 길고 복잡할 경우, 지칭 대상의 적절성과 역할의 적절성을 분리하여 각각 판단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빠른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③	
--------	--------	--------	--------	--

총 4문항